

# 광주·전남 '40년 통합공', 국회로... 2월말 통과 후 본격화

명칭, 주청사, 공무원 근무지 이동 불안 등의 논란을 뒤로하고 광주와 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시·도지사·국회의원 검토가 최종 마무리되고 빠르면 28일 법안이 발의 될 것으로 보여 '40여년만의 통합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부남·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도당위원장과 의원들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가칭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 4차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시·도지사·참석 의원들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청사는 광주·남양·동부지역에서 균형감 있게 운영하고 7월 통합시 출범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또 "특별법은 2월말 통과를 목표로 28일 공동발의하고 민주당의 입법지원을 통해 정부와 협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합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특별법 통과여부에 따라 1986년 광주·전남이 분리된 지 40년만에 다시 '한 지붕 한 가족'으로 가기 위한 특별시장 선거 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통합특별위원 명의로 28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자체 법안소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을 검토하고 "재정법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과정을 거친 뒤 행안위 전체 논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를 위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가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원이(왼쪽부터)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8일 가칭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국회 발의

### 행안위·법사위 논의·공청회·정부부처 의견 수렴

행안위는 신정훈 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이 13명이며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각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 특별법은 법률에 대한 심의·검토 과정을 거친 뒤 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국회의원 투표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상임위 검토과정에서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 재정지원, 특별시 지위, 특별시장 권한, 공무원 인사 등의 특례 조항에 대

한 정부 부처간 의견 수렴도 진행됐다.

광주·전남통합은 지난해 말 강 시장과 김 지사가 통합을 거론하고 지난 2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전격 합의한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공무원들은 근무지 이동,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하며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광주·전남, 전남·광주 등 특별시 명칭과 주청사 광주·무안 소재지를 놓고 시·도간 공방이 일었다.

이러 논란을 뒤로하고 한달여만에 특별

법이 국회 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통과 여부에 따라 40년만의 통합을 위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국민의힘 등은 통합 특별시장에 출마할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 등을 추진한다.

이어 특별시장 당선자는 인수위 과정에서 7월1일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공약 이행 방안, 조직 규모, 주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행안위·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과정과 정부측과 협상이 남아있지만 광주전남 통합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는 만큼 통합 이점 최대한 살려서 전남·광주가 원하는 성장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추제, 10월 7~11일 열린다

## 전체회의서 구제길 위원장 선출, 축제 준비 본격화

광주 동구는 제23회 추억의 총장추제 행사 '추억의 노래'를 주제로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금남로·충장로·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동구는 22일 오후 3시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2026년 제1차 추억의 총장추제 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구제길)를 열고,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추제 개최 일정과 축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추제 결과 및 총감독 위촉사항 보고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추제 개최 시기 결정 ▲총장추제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회의 결과, 구제길 광주시 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총장추제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추제를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제23회 총장추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규 길러 대표 콘텐츠 발굴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 ▲축제장 공간 재구성 ▲파레이드 주제 및 연출 고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총장추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구제길 위원장은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총장추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개최 일자를 확정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세계축제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추제를 글로벌 명품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철수 기자

전라남도는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상포진은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서 발병률이 높고 심한 통증과 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2018년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6년부터는 7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심한 장애인은 2027년 70세 이상,

## 전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단계적 확대

### 올해부터 75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지원

2028년 65세 이상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접종 대상자는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을 지참한 후 22개 시군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

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대상포진 생백신과 사백신을 모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생백신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심한 장애인은 생백신의 경우 접종 시행비 2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백신은 2회 접종 기준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고,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전남도는 문자, 안내문, 마을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대상포진 접종 사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 질환 중 하나로,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건강할 노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정부 4대 인센티브로 ▲파격적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의지를 재천명했다.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 지원이다.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주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 지원

을 국가가 보충하기로 했다.

통합 지자체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이 부여되며 차관급 부단체장 4명도 둘 수 있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은 1급으로 운영된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90만 원 지원

### 북구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육아휴직 중인 남성에게 최대 9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2026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북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육아 지원 정책이다.

올해는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여 명에게 장려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 중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이상 또는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남성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이면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아동도 북구 주민이어야 한다. /송현근 기자

다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6+6육아휴직)는 특례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 지원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최종 선발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매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이 지급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작년 첫선을 보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신청 개시 이후 약 한 달 만에 조기 마감돼 하반기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Advertisement for '2026 Naju Visit Year' (2026 나주 방문의 해) featuring a scenic view of a river and fields, with the slogan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Naju is a place I want to stay and visit again). Includes a QR code and the logo 'nownaJU'.